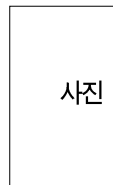


'내가 지역발전 책임자'

광역·기초지자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명부 게재 방식

선거구



이름(정당, 나이)

직책 혹은 경력

**정당 게재 - 민: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힘, 혁: 조국혁신당, 진: 진보당
무: 무소속

**소속 정당별 색은 당 색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교육감 및 무소속

**현역 지자체장은 두껍게 표기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민, 56) 전 국회의원 양정무(국, 61) (주)렝스필드 회장 백승재(진, 50) 당 행정통합위 공동위원장 김관영(무, 56)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성수(무, 54) 세무사 이남호(66) 전 전북대학교 총장 전호성(69) 전주교대 교수 조지훈(민, 57) 전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양덕(국, 58) 예원예대 객원교수 강성희(진, 53) 전 국회의원 김광종(무, 63) 아르랑당 창추위 대표 김재준(민, 54) 전 청와대 춘추관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주현(혁, 62) 전 전북조달청장 고영섭(무, 66) (주)서광경영 대표이사 최정호(민, 67)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형택(혁, 52) Like 익산포럼 대표 박경철(혁, 70) 전 익산시장 황세연(무, 73) 익산지방자치혁신 연구소장 이학수(민, 66) 정읍시장 김민영(혁, 60) 전 정읍산림조합장 김재선(무, 66) 덕산그룹 회장 양충모(민, 63) 전 새만금개발청장 강동원(혁, 73) 전 국회의원 황의돈(무, 69) 농업인	전주시장 정성주(민, 61) 김제시장 이병철(무, 66) 김제시의회 의원 유희태(민, 72) 완주군수 국영석(무, 63) 전 고산농협 조합장 전춘성(민, 66) 진안군수 고준식(무, 63) 통영학원 원장 천춘진(무, 55) 농업인 황인홍(민, 70) 무주군수 한송희(무, 66) 마케팅업 최훈식(민, 59) 장수군수 장영수(혁, 58) 전 장수군수 한득수(민, 62) 전 임실축협 조합장	군산시장 정인준(무, 68) 전 임실산림조합장 한병리(무, 72) 전 뉴욕부총장사 최영일(민, 54) 순창군수 오은미(진, 6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심덕섭(민, 63) 고창군수 유기상(혁, 69) 전 고창군수 장명식(무, 68)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원환(무, 69) 전 고창군의회 의원 권익현(민, 65) 부안군수 김성태(국, 62) 산티요양원 설립자 김성수(혁, 64) 등용ARC 대표이사 김종규(무, 74) 전 부안군수
--	---	---	--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김익겸(민, 63) 전 새만금개발청장 오지성(국, 64) 정당인 박지원(민, 38)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김중희(무, 60) 전 국회의원

▶▶ 재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참조

전북도, 이번주 민생·미래산업 '총력'

18~22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유가로 시름하는 도민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금 지급과 함께 민생 안정,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한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22일까지 추진되는 전북도정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18~22일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경제 회복이다.

전북도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 약 121만명을 대상으로 총 2139억여원 규모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19일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정읍과 고창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도는 15일부터 시작된 '은밀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여름철 무더위 피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서해안 비브리오패혈증 확산에 따른 예방 수칙 홍보에도 주력한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22일부터 소방본부 차원의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 화재 예방 및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형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최종 제한서를 제출하며 양자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애로해소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북선관위 "지선 정당·후보자 기호, 등록 마감 후 결정"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는 정당)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전국 통일기호 부여 정당은 민주·국힘·혁신 등 4개 계층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 여부를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의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다수의석순으로 결정한다.

전국적으로 통일기호를 부여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당(4번)

4개 정당으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에 따라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9회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했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01만호기자